



numbers

vol. 292

기독교인의 정치 의식 지형 조사

14%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 과잉 대표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4 국민 다문화 수용성
- ② 2024 노숙인 실태

2025. 6. 24.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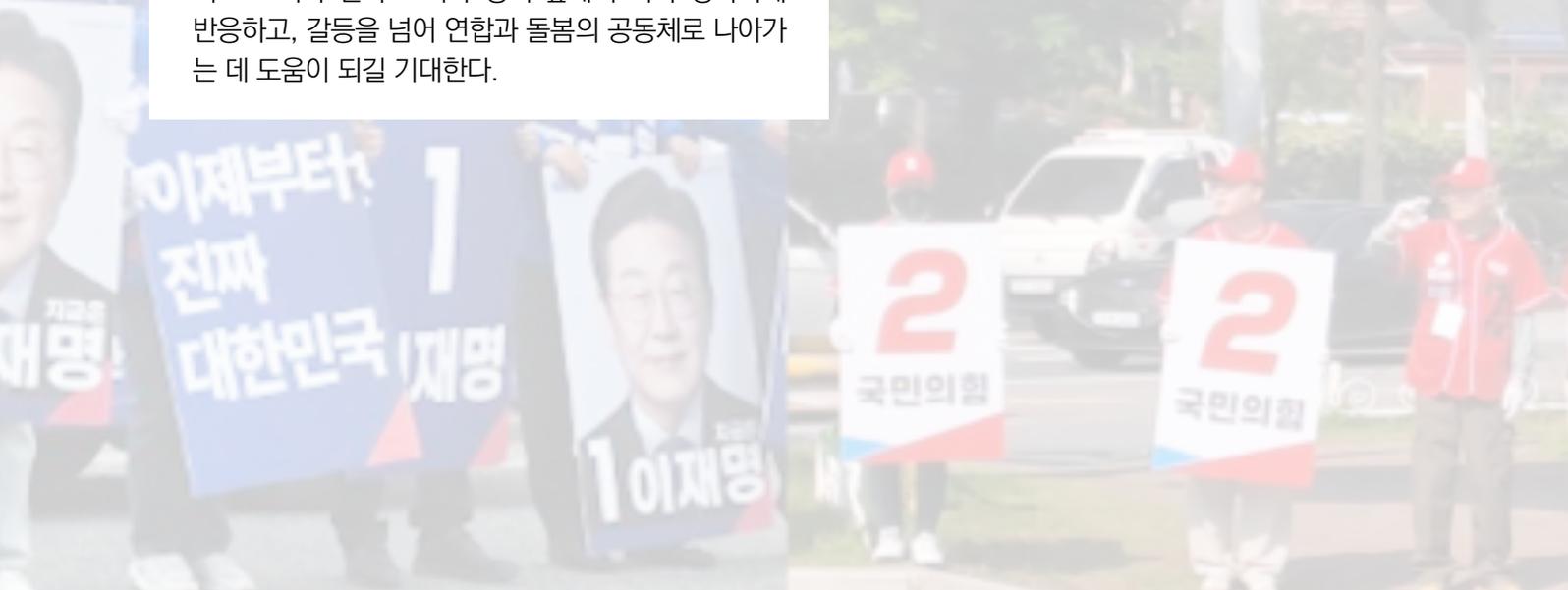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14%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 과잉 대표한다!

한국 사회 내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이념 갈등'이 꼽힐 만큼, 최근 정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속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넘버즈 292호>는 성도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문화선교연구원·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기독교인의 정치 의식 지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 이념 성향의 분포와 형성 배경, 정치적 언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목회자의 영향력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조사 결과, 매우 강한 보수, 즉 극우 비율은 성도 14%, 목회자 13%로 7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사실상 14%의 기독교 내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보고서가 한국 교회가 정치 앞에서 더욱 성숙하게 반응하고, 갈등을 넘어 연합과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의식 지형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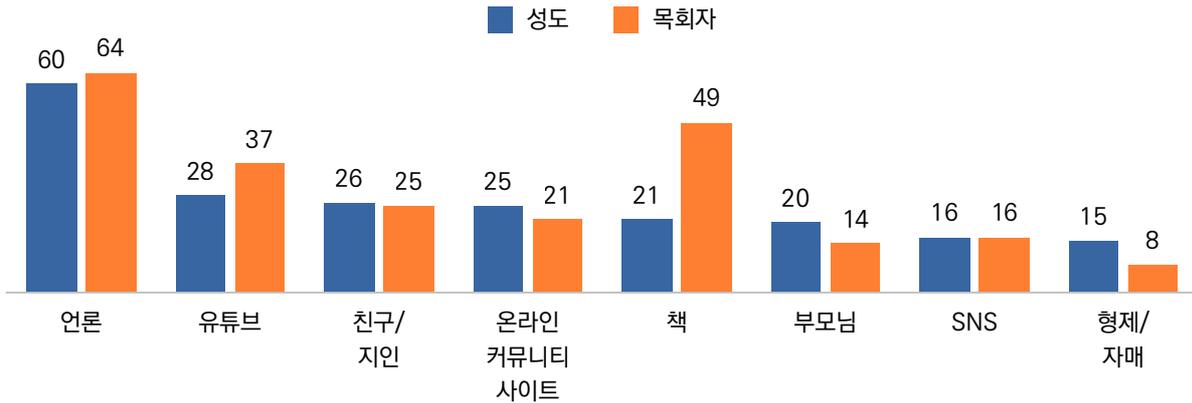
구분	성도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한국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기독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 온라인 조사가 어려운 70세 이상 일부는 종이 설문지를 통해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 	모바일 조사(Mobile Survey)
자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리감중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4월 8일 ~ 4월 25일 (총 18일간)	2025년 4월 9일 ~ 4월 10일 (총 2일간)
조사 주체	문화선교연구원 / 한반도평화연구원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정치 인식의 출발] 정치적 이념 형성, 목회자는 ‘책’의 영향 높게 나타내

-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이념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있을까? 성도와 목회자(담임목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질문한 결과(1+2+3순위), 두 그룹 모두 ‘언론’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이후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성도는 ‘유튜브’ 28%, ‘친구/지인’ 26%,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25% 등의 순이었고, 목회자는 ‘책’ 49%, ‘유튜브’ 37% 등의 순으로, 특히 책의 영향이 목회자들에게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1+2+3순위, 상위 8개, %)



정치적 이념 형성, 극우만 유독 유튜브 영향 크게 받아

- 이념 성향에 영향을 준 요인을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극우(매우 보수) 성향의 성도만 유독 ‘유튜브’의 영향이 높았고, 나머지 그룹은 ‘언론’을 가장 높게 꼽았다.

[표] ‘이념 성향별’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 (성도 기준, 1+2+3순위,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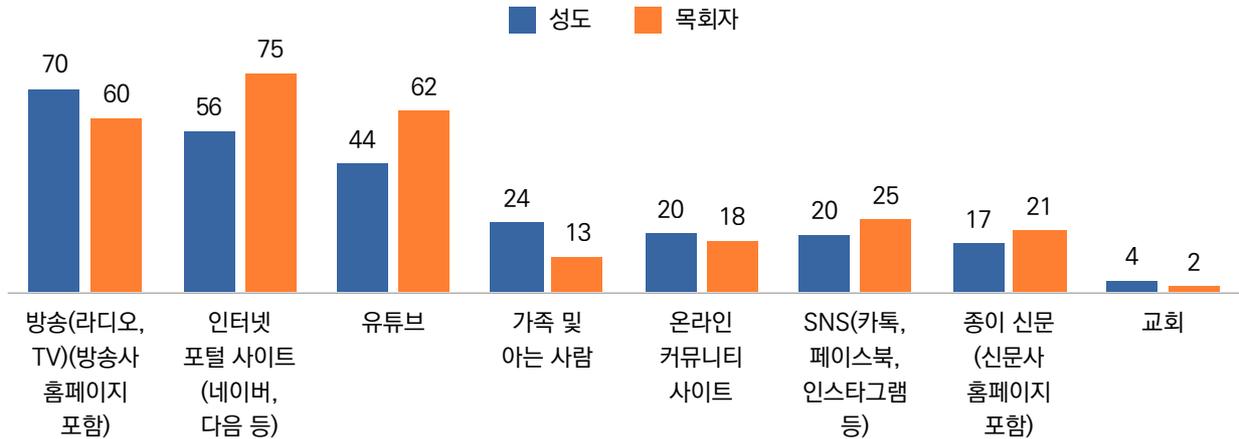
		언론	유튜브	친구/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책	부모님
전체		60	28	26	25	22	20
정치 이념 성향*	매우 보수(극우)	40	44	24	25	12	20
	보수	54	31	33	22	18	29
	중도	63	23	22	25	23	19
	진보	73	22	25	27	30	16
	매우 진보(극좌)	77	32	37	30	26	16

*정치 이념 성향 중 ‘매우 보수(극우)’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로 선택한 응답자 중 ‘2024년 1월 19일 서부지법 유치장 사태’를 국민저항권 행사로 인식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매우 진보(극좌)’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매우 진보로 선택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류함.

정치 소식 습득 채널, 성도: 방송, 목회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최대

- 평소 정치 소식/뉴스를 얻는 경로(1+2+3순위)에 대해 성도는 '방송'(70%)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56%, '유튜브' 44%, '가족 및 아는 사람' 24% 등의 순이었다.
- 목회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75%)가 1위였고, 다음으로 '유튜브' 62%, '방송' 60%, 'SNS'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회자가 성도보다 '인터넷'과 '유튜브' 경로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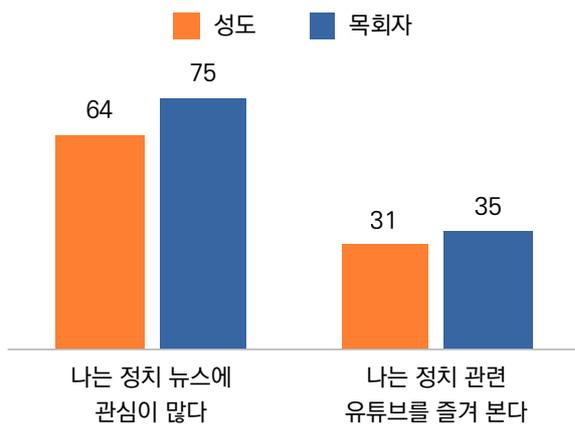
[그림] 정치 소식/뉴스 입수 경로 (1+2+3순위, 상위 8개, %)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높다!

-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성도는 64%, 목회자 75%로 목회자의 정치 뉴스 관심도가 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 관련 유튜브를 즐겨 본다'는 항목에서도 성도(31%)보다 목회자(35%)가 다소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정치 뉴스 관심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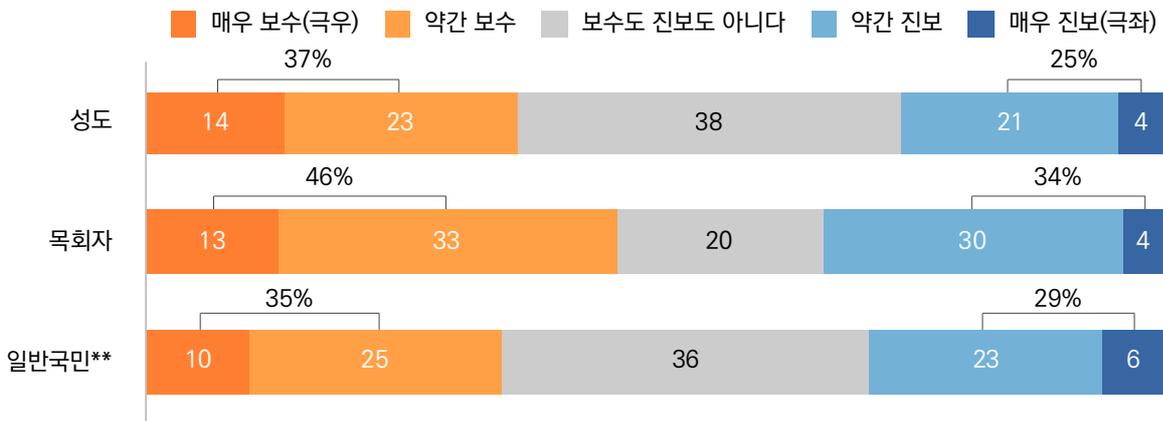
*4점 척도

02

[성도/목회자의 정치 성향] 극우 비율, 성도 14%, 목회자 13%!

- 먼저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성도와 목회자가 각각 체크하도록 한 후, 보수라고 응답한 경우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국민 저항권 vs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따라 '극우'(국민 저항권)와 '약간 보수'(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로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 성도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보수' 37%, '중도' 38%, '진보' 25%로 보수가 진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는 '보수' 46%, '진보' 34%, '중도' 20%로, 일반 성도보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적고, 양쪽 보수와 진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 극우 비율은 성도 14%, 목회자 13%로 그다지 많지 않지만, 14%의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한편 일반국민의 이념 성향을 동일 시점 한국갤럽 조사 결과(2025.04)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일반국민보다 보수 성향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도/목회자 이념 성향 (%)



*정치 이념 성향 중 '매우 보수(극우)'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매우 보수+약간 보수)로 선택한 응답자 중 '2024년 1월 19일 서부지법 유치장 사태'를 국민저항권 행사로 인식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매우 진보(극좌)'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매우 진보로 선택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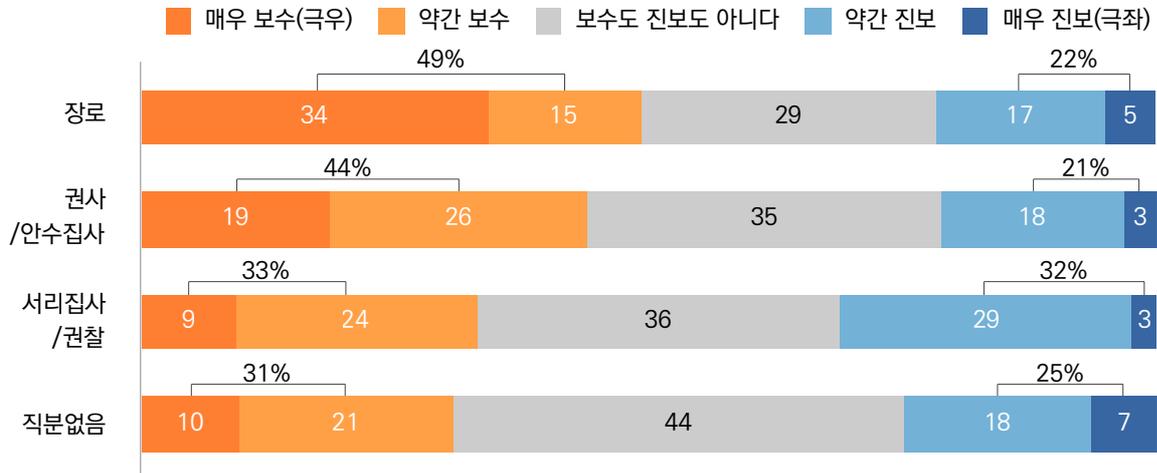
**일반국민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21호(2025년 4월 통합), 2025.04.24.

Note) 일반국민 주관적 정치 성향 응답에서 '성향유보(모름/응답거절)'를 제외하고 100%으로 환산함

장로, 3명 중 1명 극우성향 보여

- 직분별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장로'는 절반(49%)가량이 보수, '권사/안수집사'는 45%가 보수로, 권사/안수집사 이상 중직자 그룹은 절반 가까이가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 장로 중 극우 비율은 34%로 3명 중 1명꼴로 많았고, 안수집사/권사 중에서는 1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그림] 직분별 이념 성향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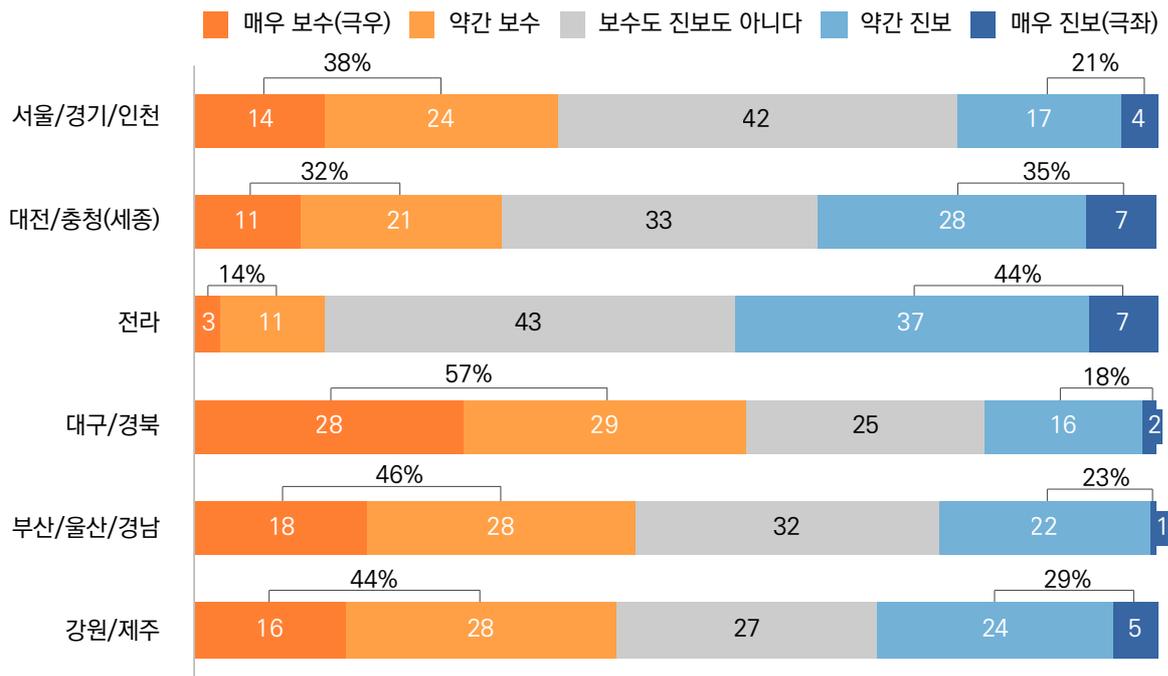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서울/수도권은 진보보다 보수가 우세

- 지역별 성도들의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이 57%로 '보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46%)과 '강원/제주'(44%)도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극우 비율은 28%로 10명 중 3명 가까이 됐다. 한편 '서울/수도권'의 경우 '보수'(38%)가 '진보'(21%)보다 우세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지역별 이념 성향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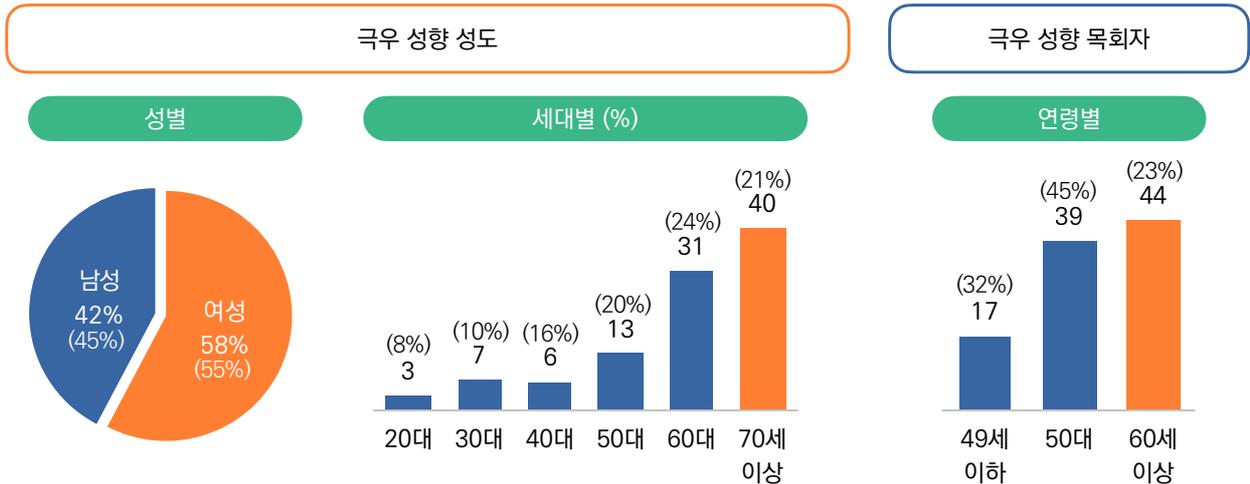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극우 성향 성도 중 71%가 60대 이상 고령층!

- 극우 성향 성도 전체를 100% 기준으로 인구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42%, '여성' 58%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31%)와 70세 이상(40%)이 전체의 71%를 차지해 고령층에서 높았으며, 20대는 3%에 불과했다.
- 이번에는 극우 목회자의 구성을 들여다보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4%로 절반에 육박했고, '50대' 39%, '49세 이하'는 17%였다.

[그림] 극우 성향 성도/목회자 분석 (인구 특성별 구성비)



Note) ()안에 숫자는 성도/목회자 전체의 구성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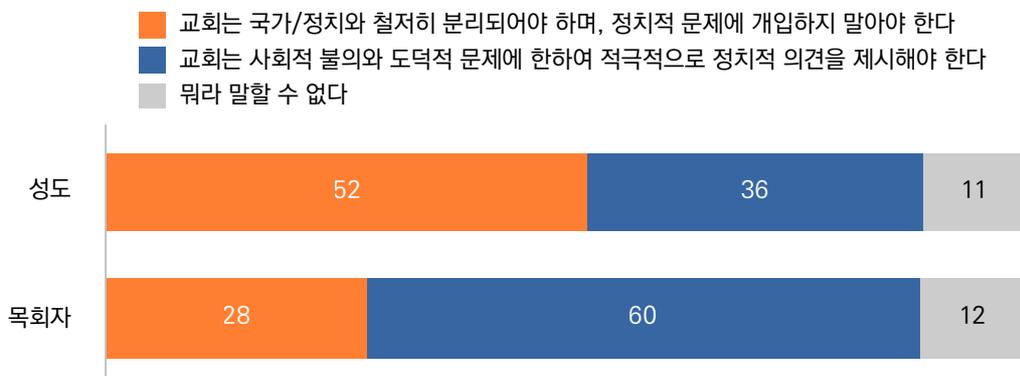
03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의 정치 개입 의견, 성도: 불개입, 목회자: 적극적 개입!

- 교회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교회는 국가/정치와 철저히 분리되고,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성도 52%, 목회자 28%였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도 36%, 목회자 60%로 두 집단 간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드러냈다. 즉, 성도는 불개입 성향이 우세, 목회자는 적극 개입 입장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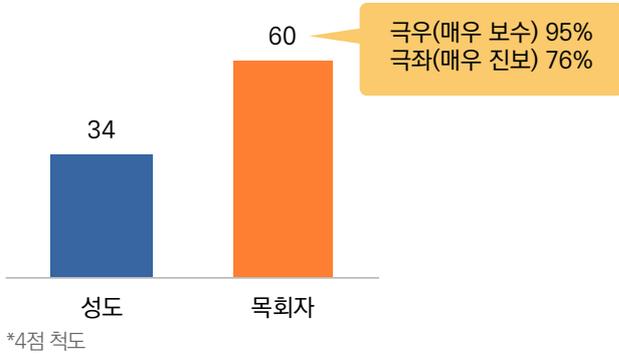
[그림]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의견 (%)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의견,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적극적!

-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 성도는 34%가 동의했고, 목회자는 60%가 동의해 목회자가 정치 참여에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의 경우 이념 성향이 양 극단으로 갈수록 정치적 참여 적극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극우 95%, 극좌 76%)

[그림]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 ('동의 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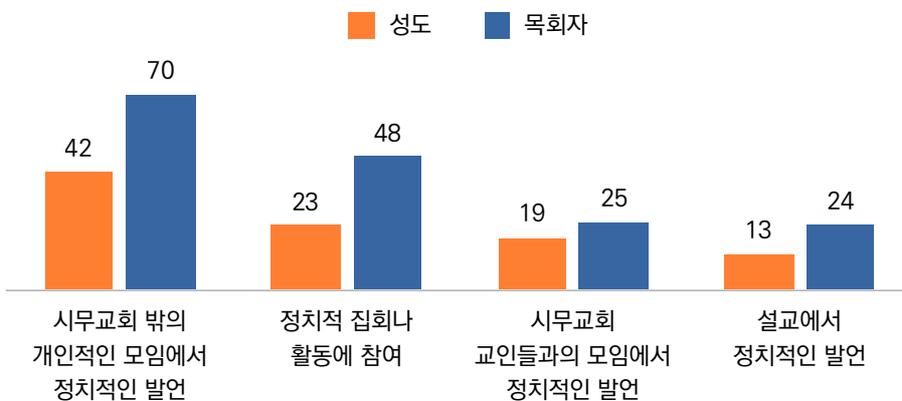
04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과 영향]

성도,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행동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지를 성도와 목회자 각각에게 물어보았다.
- 먼저 성도는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행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즉 '개인적인 모임에서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동의율은 42%로 절반에 못 미쳤고, '시무교회 교인들과의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19%), '설교에서의 정치적인 발언'(13%)에 대한 동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 반면 목회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목회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체로 성도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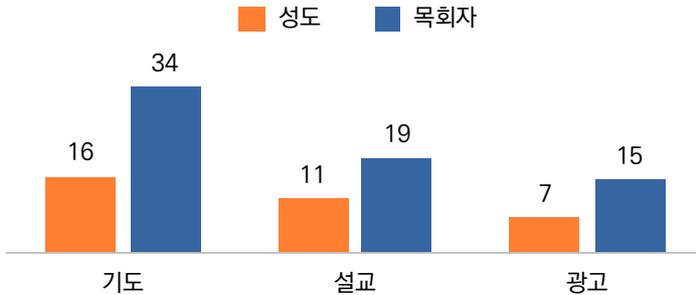
[그림] 목회자의 정치 발언 및 행동에 대한 수용도 ('허용할 수 있다' 비율, %)



목회자, 기도할 때 정치적인 발언 가장 많이 한다

- 지난 1년간 교회에서 목회자의 정치 발언 및 집회 참석 권유를 경험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언제 이를 경험했는지 물은 결과, '기도 시간'이란 응답이 16%, '설교 시간' 11%, '광고 시간' 7%였다.
- 목회자에게도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 및 집회 참석을 언제 권유했는지 물었더니 '기도 시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의 정치 발언 및 집회 참석 권유 실태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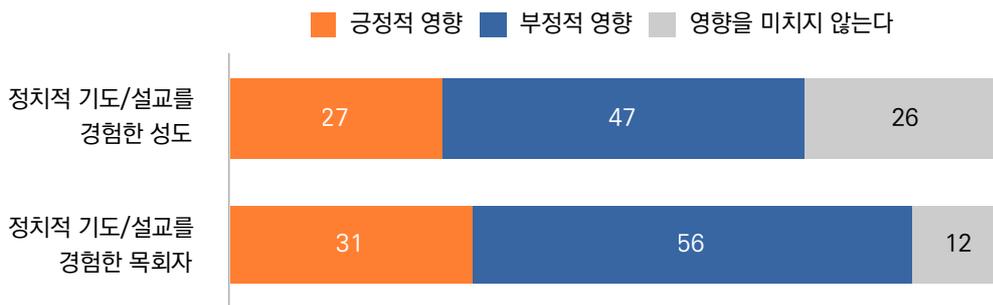
(질문)

- 성도 대상 : 귀하 교회에서 지난 1년간 담임목사님이 다음의 경우에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적 집회 참석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 목회자 대상 :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난 1년간 다음의 경우에 정치적인 발언 혹은 정치적 집회 참석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적 설교/기도, 교회에 긍정보다는 '부정적 영향' 더 준다

- 정치적 설교 및 기도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성도, 목회자 둘 다 긍정(성도 27%, 목회자 31%)보다는 부정적 영향(성도 47%, 목회자 56%)이 크다고 응답했고, 특히 목회자 그룹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성도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 이는 설교와 기도 속 정치적 메시지가 교회 공동체에 부담/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목회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정치적 설교 및 기도가 교회에 주는 영향 (정치적 기도/설교 경험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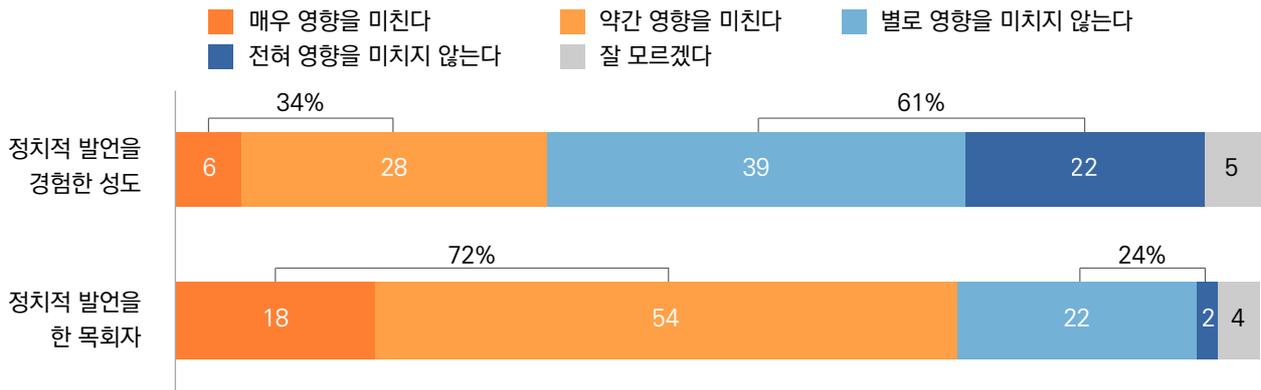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목회자, 교회 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해!

- 목회자가 하는 정치적 발언은 성도들의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성도들은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영향을 미친다'가 34%,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1%로,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을 듣고, 영향을 받는 이는 3명 중 1명꼴이었다.
- 반면, 목회자의 경우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성도들의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2%, '미치지 않는다' 24%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 발언의 영향력을 성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가 하는 정치적 발언의 영향력* (정치적 발언을 경험한 교인/발언을 한 목회자, %)



*4점 척도

05

[정치적 토론]

목회자·성도 10명 중 7명 이상, 성도 간 정치적 대화 자제해야

- 교회 성도들끼리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성도와 목회자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할 수 있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교회 내 정치 논의에 대한 강한 거리두기 정서가 드러나는 데이터이다.

[그림] 성도 간 '정치적 대화'에 대한 찬반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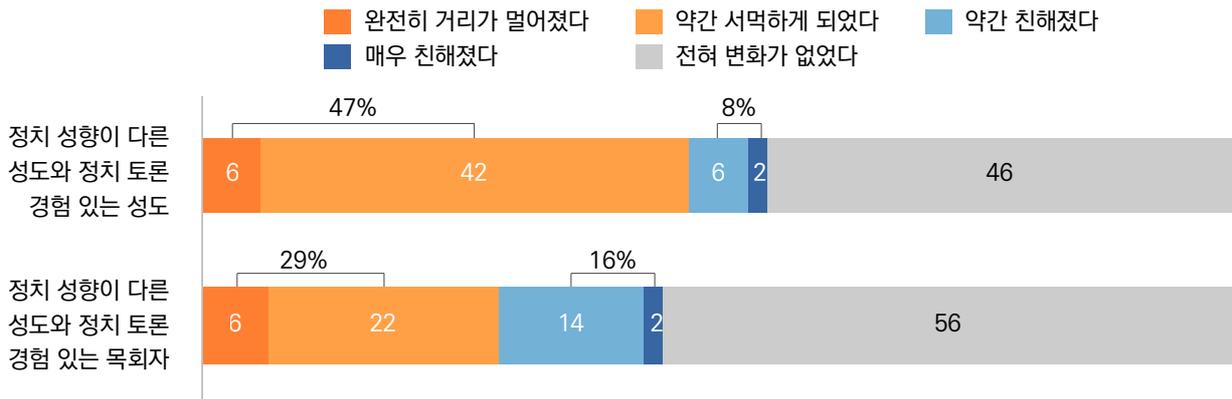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정치적 토론 후, 성도 절반 가까이는 관계 멀어졌다!

- 정치 성향이 다른 성도 또는 목회자와의 정치 토론 이후, 관계의 변화를 보면 성도의 47%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응답해, 성도 절반 가까이는 정치적 토론 이후 관계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는 29%가 '거리가 멀어졌다', 56%는 '변화가 없다', 16%는 '친해졌다'고 응답해, 목회자에서도 관계 악화 경험은 존재하지만, 성도보다 상대적으로 덜했다.
- 이는 정치적 토론이 교회 내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성도 그룹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정치 토론 후의 관계 변화* (정치 성향이 다른 성도와 정치 토론 경험 있는 자, %)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번호 요약

1. 14%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 과잉 대표한다!

- 성도의 정치적 주관적 이념 성향은 '보수' 37%, '중도' 38%, '진보' 25%로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는 '보수' 46%, '진보' 34%, '중도' 20%로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데, 성도와 비교하면 목회자가 성도보다 보수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극우 비율은 성도 14%, 목회자 13%로 그다지 많지 않지만, 대 사회적으로는 14%의 기독교 극우 그룹이 전체 한국교회 이미지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정치적 이념 형성, 극우만 유독 유튜브 영향 크게 받아!

- 이념 성향별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극우 성향 성도만 유독 '유튜브'의 영향이 높았고, 나머지 그룹은 '언론'을 가장 높게 꼽았다.

3. 성도,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행동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는데, '개인적인 모임에서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동의율은 42%로 절반에도 못 미쳤고, '설교에서의 정치적인 발언'(13%)에 대한 동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 반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체로 성도보다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자료집] 한국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 조사 발표와 함의 (목회데이터연구소/문화선교연구원/한반도평화연구원)

관련 성경 구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념 형성 과정이 세대·직분·이념 성향에 따라 매우 다층적이며,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목회자는 성도보다 정치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교회의 정치 개입에도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성도는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행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신하기보다 성도의 정치 감수성과 심리적 거리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치에 대한 설교나 기도, 정치적 집회 참여 권유 등은 공동체에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내 가급적 성도 간 정치적 발언/행동을 자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예배, 소그룹 등 목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주장보다는 성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균형있는 목회 리더십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갈등과 분열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됨을 지켜가는 길이 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4 국민 다문화 수용성
2. 2024 노숙인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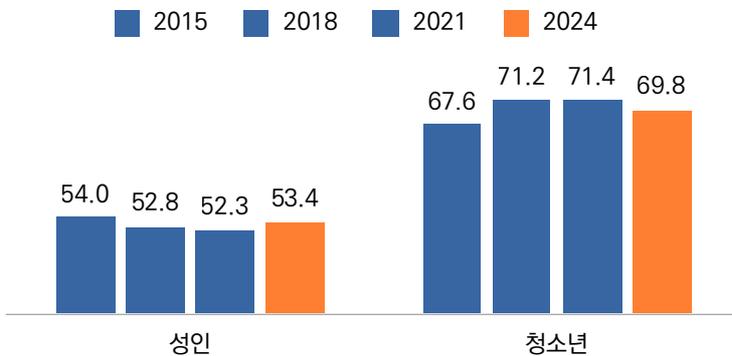


[2024 국민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높아!

-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2024, 여성가족부)’ 결과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를 보면 2024년 기준 성인 53.4점, 청소년 69.8점으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크게 높았다.
- 2021년 조사(성인 52.3점, 청소년 71.4점)와 비교해보면 성인은 1.1점 높아진 반면 청소년은 1.6점 낮아졌는데, 청소년의 경우 같은 문항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첫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

Note)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성 (①문화개방성 ②국민정체성 ③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 (④일방적 동화 기대 ⑤거부·회피 정서 ⑥교류 행동 의지), 보편성 (⑦이중적 평가 ⑧세계시민 행동 의지) 3개 차원의 8개 구성요소별 측정값의 종합임

[그림] 성인/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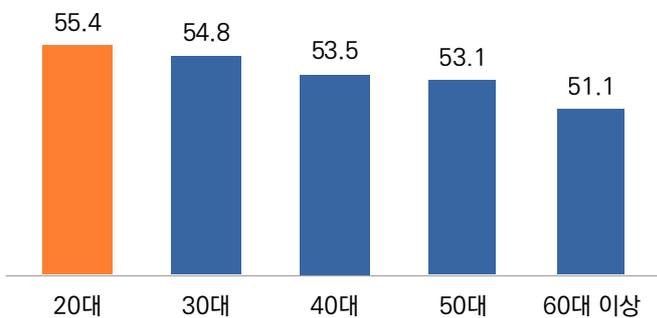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5.04. (19~74세 성인 6,000명, 중·고생 5,000명, 개별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집합조사, 2024.10.21.~12.31)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도 높다!

- 우리나라민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대체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대의 다문화 수용성은 55.4점인데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51.1점까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연령별 다문화 수용성 (2024년, 성인 기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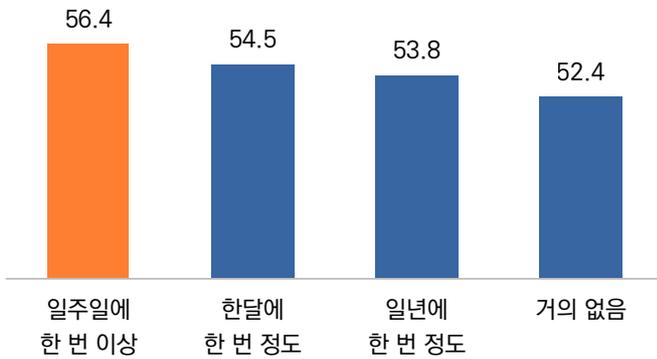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5.04. (19~74세 성인 6,000명, 중·고생 5,000명, 개별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집합조사, 2024.10.21.~12.31)

이주민과의 상호작용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

- 이주민과 상호작용 빈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을 비교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주민과 상호작용하는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56.4점으로 가장 높고, 상호작용 빈도가 줄어들수록 수용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없음’ 집단의 경우 5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이주민과의 상호작용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과의 상호작용 빈도별 다문화 수용성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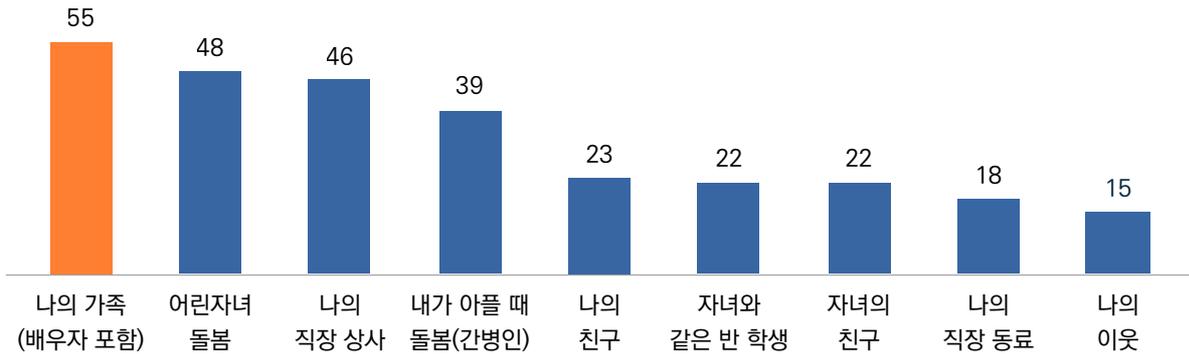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5.04. (19~74세 성인 6,000명, 중·고생 5,000명, 개별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집합조사, 2024.10.21.~12.31)

우리국민 절반 이상, 이주민이 배우자 등 나의 가족되는 것은 ‘불편하다’!

- 이번에는 이주민이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등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물었다. 그 결과, ‘나의 가족(배우자 포함)’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 이어 ‘어린자녀 돌봄’ 48%, ‘나의 직장 상사’ 46% 순이었는데, 이웃(15%), 동료(18%) 관계와 달리 가족관계/돌봄 등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주민 수용에서 느끼는 불편함 수준이 크게 높았다. 또한 이주민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직장 상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48%)을 보였다.

[그림] 이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 (‘매우+다소 불편’ 비율*, %)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5.04. (19~74세 성인 6,000명, 중·고생 5,000명, 개별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집합조사, 2024.10.2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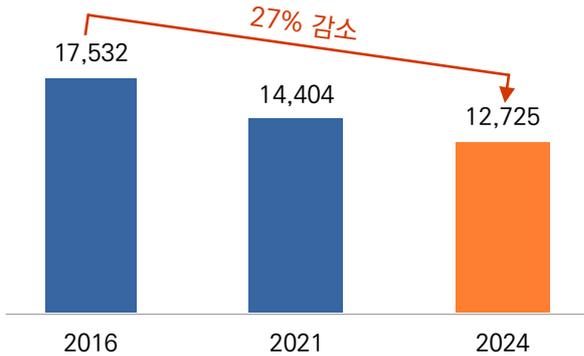
*4점 척도



[2024 노숙인 실태] 노숙인 규모,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노숙 원인 및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노숙인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17,532명, 2021년 14,404명, 2024년 12,725명으로 집계돼, 지난 8년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체 노숙인 등* 규모 추이 (명)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6.10.

*노숙인 등 정의: ①거리노숙인(거리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 ②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③쪽방주민(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

거리노숙인, 3명 중 1명 이상은 '실직'으로 노숙 시작!

- 거리노숙인들이 노숙을 하게 된 계기를 묻은 결과, '실직' 때문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24년 조사), 이어 '이혼 및 가족해체' 13%, '사업실패' 11%, '주거지 상실' 8% 순이었다. 거리노숙인 3명 중 1명 이상은 '실직'으로 거리노숙을 시작하는 셈이다.
- '실직' 비율은 이전 조사(2021년)보다 감소했는데 반해 '이혼 및 가족해체'와 '주거지 상실' 사유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거리노숙 계기 (거리노숙 경험자, 상위 4개, %)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5.04. (19~74세 성인 6,000명, 중·고생 5,000명, 개별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집합조사, 2024.10.21.~12.3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회 일반

[국민 노후준비 수준 70점…돈·건강·여가 모두 '빈부격차'](#)

연합뉴스_2025.6.22.

[\[팩트체크\] "세계 6위 강대국 한국"…진짜인가 허상인가](#)

연합뉴스_2025.6.18.

[중장년·보수층, 유튜브 뉴스 많이 본다](#)

매일경제_2025.6.17.

[열살도 안됐는데 우울증 입원…"이유가 뭔가"李도 걱정한 '자살률'](#)

중앙일보_2025.6.19.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제일 취약점은 '지역 간 격차'"](#)

연합뉴스_2025.6.18.

[결혼이주여성 건강 '빨간불'…8.3% 우울장애·62% 건강검진](#)

연합뉴스_2025.6.19.

[\[샷!\] "도대체 몇 번째냐"\(스토킹 범죄\)](#)

연합뉴스_2025.6.16.

["보수 적고 워라밸 힘들어"…9급 공무원 경쟁률 '뚝'](#)

동아일보_2025.6.18.

[\[2025 결혼인식조사\] 이상적 결혼나이와 실제 초혼연령 격차 확대, 결혼 인식은 실용화](#)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6.17.

[2025 '부모부양' 및 '부모 인지장애\(치매\)'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6.19.

[\[팩트체크\] 한국인 정말 '롱다리' 됐나…세계 순위 보니](#)

연합뉴스_2025.6.24.

아동 · 청소년 · 청년

[대학 가야 취업 잘 된다? 20대는 고졸이 더 잘 된다](#)

조선일보_2025.6.17.

노인

[고령자도 남녀 임금격차 심각…여성이 남성의 59% 수준](#)

한겨레_2025.6.2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국내 100대 기업, 경제 기여액 1천600조원 돌파...삼성전자 1위](#)

연합뉴스_2025.6.18.

[직장인 73%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연합뉴스_2025.6.15.

[기업하기 어려워진 한국, 국가경쟁력 7계단 하락](#)

중앙일보_2025.6.18.

[\[단독\] 휴게시간 제공 않는 풍토 만연, 서러운 편의점 알바](#)

국민일보_2025.6.23.

['빛투족'이 돌아왔다...시중은행, 하루 2100억씩 가계대출 급증](#)

중앙일보_2025.6.22.

국제 · 환경

["日 식민지배 충분히 사과했다" 韓 13% 응답... 日은 67%](#)

동아일보_2025.6.20.

[세계 연구기관 톱10 중 중국이 8곳... 美 제치고 2년 연속 1위](#)

조선일보_2025.6.19.

건강

[체중 감량 효과 비교해보니... "비만 수술이 약물 치료의 5배"](#)

연합뉴스_2025.6.18.

["말기 암 생존율, 마음에 달려... 긍정적 태도 따라 4.63배 차이"](#)

연합뉴스_2025.6.19.

[생존율 9.2% 급성 심정지,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이것'](#)

동아일보_2025.6.19.

[20대의 건강 고민은 '스트레스', 40대는 '눈 건강'... 50대는?](#)

조선일보_2025.6.16.

기독교 · 종교

[북한·탈북민 호감도 ↓ ...교회 '먼저 온 통일' 품을 수 있나](#)

국민일보_2025.6.16.

[유럽 시대 저물고...세계 기독교 중심 '아프리카'로?](#)

기독교연합신문_2025.6.1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웍,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시길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01
청빙방식
결정
(공모, 추천)

02
최적화된
목사 Profile
도출 조사

03
1차 선별
도출된 Profile에
근거하여
지원자 선별

04
2차 선별
선별된 후보자
평판 조사

05
최적의 담임목사
추천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전문성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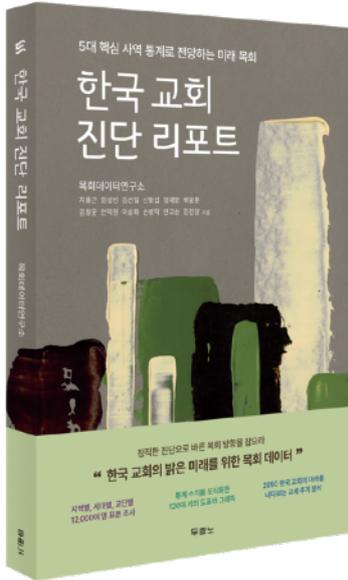


체계성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쿼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